구조조정·뉴딜펀드 등 과제 산적… 업무공백 최소화 포석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연임

KDB산업은행 역대 4번째 연임 사례
수장 교체 리스크 최소화 위한 조치
기업매각·구조조정 문제 지지부진
매각협상 무산된 아시아나 대책 논의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KDB산업은행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연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은행의 금융지원 역할이 중요해진 데다 수장교체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 회장이 추진해 온 기업매각과 구조조정 문제는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이를 해결할 만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지가 과제로 지목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연임이 최종 결정돼 11일부터 새 임기를 시작한다. 산업은행 설립 이후 이 회장이 연임한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산업은행은 1954년 설립 이후 초대 구용서 전 총재(1954~1858년), 김원기 전 총재(1972~1978년) 이형구 전 총재(1990~1994년)가 연임했다.

이 회장의 연임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산업은행의 금융지원 역할이 중요해 진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후임이 마땅치 않았다는 얘기도 들린다. 산업은행은 현재 코로나19로 기간산업안정기금과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특수목적기구(SPV) 운영 등 기업 유동성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의 실무업무도 수행한다.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수장을 교체할 경우 내부 조직 등을 다시 꾸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이 회장은 지지부진한 기업매각과 구조조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지가 과제로 지목된다. 지난 2017년 이 회장은 취임하면서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코로나19로 상황이 더욱 악화돼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당장 이 회장은 오는 11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매각협상이 무산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인수하기로 했던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로 영업부진이 지속됐다. 지난달 이 회장이 정몽규 HDC현산회장을 만나 인수금액을 기존 2조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지만 정몽규 HDC현산회장이 재실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사실상 매각은 무산된 상태다.

현대중공업에 매각하기로 했던 대우조선해양도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중공업이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 곳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를 비롯해 일본, 중국,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총 6개국이다.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에 이어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기업결합승인을 받았지만, 코로나19로 심사지연이 지연되면서 연내 결론을 내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자회사인 KDB생명 매각도 아직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떠안은 KDB생명은 지난 2014년부터 매각을 추진했지만, 저금리 기조와 부실가능성에 계약체결이 불투명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입장에서도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사가 거의 없는데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수장교체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아시아나항공 매각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정부정책과 구조조정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이 회장이 적임자라고 판단했을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윤종원, 신입행원들과 언택트 대화의 시간

〈IBK기업은행장〉

올해 상반기 신입행원 250여명 채용
지난달부터 6주간 온라인 연수 진행
"고객 먼저 생각… 법·윤리 준수하길"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지난 9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2020년 상반기 신입행원들과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IBK기업은행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신입행원들과 만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10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윤종원 은행장은 지난 9일 '언택트(Untact)' 신입행원 연수 중인 직원들과 실시간 온라인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앞서 기업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대규모 채용과 연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청년 일자리를 위해 지난해 상반기보다 규모를 확대해 250여명의 신입행원을 채용했다. 기업은행은 이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이번 주까지 6주간의 온라인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윤 행장은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역할, 성장 배경, 당면 과제 등을 직접 설명하며 "IBK가 혁신금융을 선도하고, 새로운 금융영토를 개척하는데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 부단히 실력을 키워야 한다"며 "기본을 지키는 것이 경쟁력인 시대인만큼 고객을 먼저(First) 생각하고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IBK인이 돼달라"고 말했다.

윤 행장은 또 "다양한 분야에서 실력과 전문성을 키워 '실력 있는 은행'을 만들고, 팀워크와 조화를 통해 '품격 있는 은행'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7월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 상승세

전월 말 대비 0.03%p 상승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한 달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36%로 전월 말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0.10%포인트 하락했으며,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신규연체 발생액이 1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000억원 늘었고,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원 줄었다.

차주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44%로 전월 말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

연체율은 대기업대출 0.29%, 중소기업대출 0.47%로 전월 말 대비 각각 0.08%포인트, 0.04%포인트 높아졌다. 중소법인 연체율이 0.06%포인트 상승한 0.62%,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0.01%포인트 상승한 0.30%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6%로 전월 말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7%로 전월 말과 유사하며,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월 말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